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價金 壹枚四錢 壹個月八拾錢 郵稅並九十五錢 … 地方必先金
廣告料 五號活字 …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 編輯兼發行人 … 印刷人 … [illegible]

社說
트로츠키氏와 勞農露西亞(下)
民主主義의 降伏!

一

上段에서 縷述한바와如히트로츠키氏는 民主主義의錯誤된論法으로共產黨改造를 主張하엿스나 吾人의觀察로하면 當時露西亞의共產黨이 機會主義로墮落하게된것이아니라 트로츠키自身이몰이어멘쉬비키의誤謬論으로墮落되든所以이엇다 다시말하면 레닌이일즉黨員整理를斷行치못한結果 若干의멘쉬비키分子가 共產黨內에殘存하야트로츠키氏를 不知中에社會民主主義로 墮落케하야 이와가티一時的混亂을惹起하게된것이다 그런데이번에 트로츠키氏가 再次活躍의機會를得하야中央政界에出馬하든當時에 際하야한바에依하면 今後는레닌이씀을 忠實히遵奉하겟다하엿다 이것도트로츠키自身이 그誤謬點을反省하고 悔悟한것으로보는것이妥當할가 그러치아니하고 單純히 한政略上口實에不過한것일가

二

元來트로츠키는 멘쉬비키의直系의人物이다 그럼으로黨內에政黨的分派를 認定하라는것은 멘쉬비끔으로서 統一된共產黨內에 멘쉬비끔의門戶를開放코자함에不過한것이다 그리고彼가 靑年重用을一條件으로擧한것은 無產階級의革命的精神이漸漸衰沈되야가는 現象을匡救함에는 戰鬪的勇氣의旺盛한靑年을登用함에잇고 더러靑年은自由되고 充分이澁滯한外部에 黨의官僚主義化의弊端을防止할수잇슬것을 主眼으로한바이나 그러나 多事多端한露國國情에鑑하야 驅驅히政策을決定키不能한現象에잇서 經驗識見 忍耐自重이不足한靑年을政局에當하는것이 엇지危險치아니라 하물며黨組織의歷史的背景과黨員統率上 許多한難關이橫縱伏在한時期에잇서 容觀的條件을等閑視한다하랴

三

레닌在世時에도 屢次트로츠키가 新經濟政策을反對하든口實가운대 가장主眼이된것은目下經濟上窮境에 빠지게된것은그原因이 오로지中央集權制의露守에잇스니 地方分權的新統治方針을立하야 이難關을突破함이妥當함을 力說하는同時에今後에도 亦是中央集權制를持續한다면 露國의經濟上窮乏은必然히現在以上의慘境에 陷하게될것을 預言한일이잇섯스나 反革命軍과 農民의無智와및大饑饉으로말미아머 極度의窮迫狀態에빠저잇든 露國經濟界는二十二年新經濟政策의實施로因하야 자못顯著히回復되야 農業 工業 商業할것업시 着着復興또發達케되엿다 이에트로츠키의預言은 適中치못하게되엿다 그런데第十三回大會即二十四年大會에서 트로츠키는다시前過失을되푸리하야 自己의宿論을實現코자한것이다

四

그런데 트로츠키의이와가튼態度에對하야 지노비에푸는寸步를讓步치안코 峻嚴한態度로臨하엿다 그리고後日트로츠키의小부르조아的思想이綻露할것을指摘하야 그에對하야檄喊의必要를力說한바잇섯는데果然그預言은適中하야「十一月革命」이란冊子로서出現되야 例의混亂의張本을作한것이다 彼는黨組織의價値를 輕視하고 個人의功績을過信하는結果英雄主義를 助長하는結論에到達하게되고 또한農民의勢力을 認치아니하엿나니 일즉레닌이武裝反亂前期에잇서 農民은革命期에一大威力이될것을 確信하고 農民의組織에熱中함에反하야 트로츠키는몰이어 徒勞가될것이라고嘲笑하엿섯다 그러나十一月革命에 農民이如何히重大한任務를 遂行한것은可敵의必要가無히 儼然한事實이아니엇는가

五

이와가티 트로츠키씀은 여러方面으로 레닌니씀과相容치못할背馳點이잇스니 黨內에잇서 그만한衝突이잇슬것은勿論이다 그러나 左翼共產主義者의結束이 鞏固하고 그들의政策이着着實績을擧하게되는現象에잇서 트로츠키씀의敗退의形勢는存在의價値를認定키難한바이다 이것이臨時로發動하는것은헛지아니한混亂을이르키든바이다 그런데 昨年大會에서黨內의積弊를一掃키爲하야 그러한徹底한排斥을 斷行한것이事實이다 이제트로츠키가 레닌니씀의忠實할것을 言明하엿스나 今後의트로츠키씀은 果然永久히消滅되고말것인가 이것은今後注目할問題이다

獨白國境撤去問題
힌將軍對獨帝覺書內容
波蘭新聞紙의揭載發表

(왈소無電十八日發) 波蘭新聞「크두엘、보라니」紙는 千九百十八年即戰爭終了年七月에「힌덴부르」元帥로부터當時의宰相에게送한覺書를揭載하얏는데右는獨白國境을撤去하야約八千基米突平方을獨逸의防禦地帶로할것을推薦한것이더라

힌元帥大統領當選과 포元帥對記者團評論
『그正義를信用한다』

(왈소十八日發) 伊太利에旅行中인「포쉬」元帥는「힌덴부르」元帥의獨逸大統領當選問題에關하야新聞記者團에對하야 「元帥의當選은不可하다 그러나元帥가共和憲法에忠實을誓하는一事로써監視치아니하면不可하다 그러나元帥가共和에忠實할것을聲明하는以上에는그正義를信用한다」고陳述하고 更히獨逸合併에對하야는率直히反對를聲明하야 佛蘭西의後繼國監督의關稅經濟聯合의成立을遲延하고最後에聯合國이「라인」地帶를占領하는以外에는獨逸의復讐的野心을避할것이라語하얏더라

勃國外相
英外相會見內容

(왈소無電十八日發) 目下訪英中인勃牙利外相「캘푸포프」氏는十八日英國外相「쳄바렌」氏와勃牙利의情務에關하야協議한바가잇섯더라

國際勞働會議開催

(노도無電十八日發) 「제네바」國際勞働會議는十六日에開催되얏더라

유國外相의聲明
反볼수비키同盟否認

(왈소十八日發) 「유고슬로비아」外相「닌칫치」氏는小協商會議의目的은反「볼수비키」同盟의成立에잇다는風說을否認하얏다 그리고小協商同盟國은모다第三帝國運動에對하야充分한軍備를가젓고特히反「볼수비키」同盟의必要가업슴을聲明하얏더라

廣東市空氣緊張

(廣東十八日發) 反赤政軍은十七日부터續續歸還하는中인데一部는旣히市內에入하엿다 劉震寰軍과의賭博稅爭奪은機會로衝突을免치못하고此를導火線으로楊希閔、劉震寰等의反政府軍과反赤政譚延闓及許崇智等의政府軍과戰端이開始될듯하야十八日朝來市內는急遽히緊張하여젓다더라

定例閣議經過

(東京電) 十九日의閣議는午前十時首相官邸에開會하고(若槻內相、濱口藏相、野田商相、岡崎農相缺席) 加藤首相以下가出席、幣原外相으로부터最近外交經過의報告가잇슨後當面의政務를協議하고失業統計調查施行令、十四年度國勢調查施行令、朝鮮總督府地方官制中改正의件、關稅率改正準備委員會規則、豫備金支出의件、靑島山東鐵道技師大村阜一로任朝鮮總督府鐵道局長을決定하고正午에散會하얏더라

法制審議會

(東京電) 臨時法制審議會總會는十九日午後二時부터首相官邸에開會하야沼淵總裁以下各委員幹事가出席하야民法改正의逐條審議를遂하고五時에散會하얏더라

關稅定率改正
準備委員決定

(東京電) 關稅定率改正準備委員은十九日閣議에서左와如히決定하얏더라

會長에濱口藏相、委員에中村外務政務次官、出淵外務次官、佐分利通商局長、早速大藏政務次官、田大藏次官、三木大藏參與官、黑田主稅局長、神鞭稅關長、矢部大藏技師、三土農林政務次官、阿部農林次官、石黑農務局長、秦商工政務次官、四條商工次官、副島商務局長

日本在米
總數量發表

(東京電) 農務省發表=五月一日現在日本在米豫想總數量은二千九百六十四萬七千百一石으로前年同期에比하야三十五萬一千六十石(約一分二厘)의增加이더라

在米種別

十九日農林省農務局發表의在米中內外產別及所有者別은左와如하더라

日本米 民間所持二千六百八十二萬二千八百五十三石 政府所持 三十八萬四千四百三十石
朝鮮米 民間所持五十九萬六千六十九石 政府所持無
臺灣米 民間所持二十五萬八千六十八石 政府所持無
外國米 民間所持 六十萬八千七百八十四石 政府所持 九十七萬六千八百三十四石
合計民間所持 二千八百二十八萬五千七百七十四石 政府所持 百三十六萬千三百二十七石

本年農作概況

(東京電) 農務省發表=各府縣農事試驗場의五月六日의試驗成績其他情報를綜合하면從來의旱魃被害는緩和된模樣이나氣溫低下의嫌이잇서東北地方은成績이稍히不良하나西南部地方은相當하고南部地方은目下의成育狀態로는例年과大差가無한模樣이나收穫量及品質은成熟期의天候如何에左右되야今後의作況은遽히豫想키難하다더라

切手等賣上步合

日本과同樣으로하라는建議 這般의全朝鮮郵便所長會議에서切手及收入印紙의賣上步合을日本과同樣으로하여달나는建議가잇섯는故로遞信局에서는直接收入이減할뿐아니라成績에도關係되는故로愼重히考慮한다는데左는日本의規定에는三等郵便局信局及賣捌人에對하야는切手千分의五十收入印紙千分의四十無集配三等郵便電信局及賣捌人은切手千分의三十五收入印紙千分의三十無集配三等局의賣捌人에게賣下하는境遇는切手千分의三十收入印紙千分의二十五임에對하야朝鮮에서는日本과如히局에依한區分이업시切手三分五厘收入印紙三分八厘로되여잇는外에는外다이라더라

還附不能郵便物

差出人不明還付不能으로燒却되는郵便物이最近一個年間에三萬一千七百六十二張이잇섯는데其內容은書狀一萬三千二百八十八張、葉書一萬六千百四十一通、其他二千百九十二張이라더라

長木靑年大會
內容改革決議

巨濟島長木靑年會에서는去一日上午十時에長木面長木里에서定期大會를開催하고會長金鍾煥氏司會下에左記各項을決議하고同日下午六時에閉會하엿다더라

一、財產整理에關한件
一、內部改革에關한件
一、巨濟靑年聯盟에加盟의件
一、普明敎育會同情에關한件 (巨濟)

安東市民運動
可驚할金君의健脚

慶北安東郡安東面市民의主催와東亞、朝鮮兩支局後援으로陸上競技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去十七日上午十時부터當地練兵場에서開하엿는바會長金成鉢氏의簡單한開會辭가有한後에萬觀衆의拍手聲中에選手의入場式을마치고順序를따라五十餘種의競技를拍手喝采로마치엇다는데그中觀衆의耳目을놀랍게한것은二十里長距離競走에優勝을한사람은멀리榮州에서온講習所生徒金炳周當年十九歲의少年이라하는바그少年은以前에도十餘回나長距離競走에優等賞을한壯少年이라하며리레競走에優勝의月桂冠을어든團體는當地私立地方學林生徒權鍾鎔外四人이라더라(安東)

印工組合創立
馬山에서

旣報=馬山印刷職工創立總會를지난十七日午後八時에當地俱樂部會館에서열고臨時議長朴琮奎氏의司會下에會順을進行하는中宣言及綱領은當局의禁止로因하야保留하고規則을通過한後委員을選擧한다음에左의事項을決議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入會金及月捐金에關한件
一、互相親睦을圖하야哀慶災難에對한件
一、事務所位置에關한件

◇委員
金共沸、洪順一、兪湛柔、鄭且韜、金順石、李玉珍、沈在熙、金啓文、姜萬道(馬山)

支石勞働夜學
將來가有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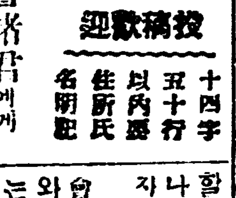
巨濟島沙等面支石里有志靑年曹秉默氏는附近勞働者들의文盲을退治키爲하야去年一月부터漢文習堂을改革하야勞働夜學會를創立하야爾來一年餘에義務的으로敎授하든바最近에와서는生徒가激增함으로敎室二間을다시增築하고一層熱心으로從事함으로그夜學의現在는勿論이요將來가매우有望하다더라(巨濟)

豊基에三大會
三日間盛況

慶北榮州郡豊基에서는市民一同의主催로去十二日부터同十四日까지市民運動大會、脚戲大會、自轉車競走大會를擧行하얏는데未曾有의大盛況을呈하엿다더라(榮州)

金海活寫隊來東

金海靑年會活動寫眞第二回巡業隊가去十五日부터當地禮拜堂에서東萊靑年會女子靑年會의後援으로兩日間興行하엿는데不…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住所氏名明記

長城靑年會諸君에게

◇去月二十六日長城靑年會定期總會를본나는諸君에게一言을忠告한다 勿論缺陷이잇고誠意가업는나로서諸君에게忠告를한다함은매우부끄러운일이다 그러나諸君을爲하야不得已一言의忠告를하는것은諸君의反省을促치아니치못할가한다

◇우리의前路를開拓하라면다시말하면生活을挽回하라면무엇보다도團體에모임이가장先務라하야所謂長城靑年會라는것을當初에부치지안하엿는가?그러면設立以來會의事業으로可取할만한무엇이잇섯는지엇는지나는구태여此를여기에서論評코자하지안는다

◇然이나朝鮮에잇는長城靑年會라는君板下에諸君의精神과會와는서로背馳가되여오지안하엿는가?엇어도이것은切實히反省함이잇서야하겟다 諸君은經濟威脅이니生活波波이니하면서辯明을하리라 勿論그러하다 肉體를保持키爲하야生活資料를求하는者를그누가責하랴 然이나君等과가튼生活의環境에處한者로서會의機關을運轉케한다하면眞實한意味로서의靑年運動을可期치못할것은贅言을不要한다

◇諸君도良心이잇거든過去모든處事와그內容을詳察하라 過去에잇서서會長은何職에잇섯스며會員은何業을營하엿는가?筆者는會員과諸君의職業貴賤을구리어말하고자함이아니다 다만엇더한業者로서組織된모임이된다하면반드시自由스러운神聖한모임으로보기어려울뿐더러會의精神이會名과는相反된다는批評을免치못할것은事實이라는말이다

◇보라!엇어도定期總會日字는會則에明記되엿슴에不拘하고期日이臨迫하야通知까지잇섯스나總會出席은不過十四人이엿스며京城靑年總同盟에나去月에開催된全南靑年大會에도加盟치못하엿슴은그무엇으로써할것인가 이는會員된者의職業의關係上會로서의事業과自由까지빼앗긴것이라고余는斷言한다

◇諸君은筆者의일은바를深切히諒解하야眞實한意味의모임에着識하기를바라는同時에모임에着着모아주기를衷心으로勸하는바이다 最後로一言을더할것은筆者도地方分子라貴會와運命을가티하고저諸君에게反省을促하여둔다(長城分子)

幼生野遊會

衛陽幼稚園生四十餘名은園長金來鳳氏와園監文昌浩氏와保姆金在順女史와朴義貞女史와金敬俊氏引率下에去十七日三門里竹島園地에모히여野遊會를開催하얏다더라(衛陽)

(前略)…雨日間天으로事務는되엇스나成績은相當히良好하엿는바同情人士와金額은如左하다더라 東萊靑年會五圓 女子靑年會二圓 朴洪一圓(東萊)

醴泉公普保護總會

慶北醴泉公立普通學校兒童保護者會에서는지난十六日下午二時同學校內에서同會第二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會長金翰奎氏司會下에前年度收支報告本年度收支豫算決定規則改正과任員選擧를行한後閉會하얏다는데被選된役員은如左하다더라

會長金翰奎 副會長學校長 評議員金義淡外十一人 監事張南輿外一人(醴泉)

星州親睦稧

慶北星州에서는親睦稧가組織되엿는데稧員은男女合七十七名에達한바從來人類階級의習慣을打破하고老少問吉凶을當할時는稧員等이互相資助하자는것인데去十日에準備會를開催하고來六月七日에創立總會를開催하리라더라(星州)

啓明學院音樂會

慶北安東郡啓明女學院에서는該學院의經費를多少補充키爲하야去十五日午後八時부터安東禮拜堂內에서音樂會를開하엿는데東西洋의音樂으로數百名의聽衆에게大喝采의盛況이엿스며樂士는如左하다고

樂師朝鮮人權泰浩 朱錫璣 西洋宣敎師權永榮同婦人權爕(安東)

榮州에金雨

慶北榮州郡等地에는客年七月부터旱魃이繼續하야一般農家의憂慮가太甚하든바去十四日부터洽足한비가왓슴으로一般은매우깃버한다더라(榮州)

南鮮庭球도延期
六月六、七兩日로

羅州體育會主催와東亞、木浦、羅州支局後援으로南鮮庭球大會를來三十日、三十一日兩日間羅州靑年會館코―트에서開催한다함은累次報道하엿거니와該日에는各處에서庭球大會도잇스며또는各處에서時日의延期要求도잇스며當地의事情도잇슴으로來六月六日、七日兩日間으로延期하엿다더라(羅州)

郡當局의無誠意로 順天果樹의大損
果樹組合의憤慨

全南順天郡內에在한果樹組合員一同은郡勸業係員의勸誘에依하야虫災豫防消毒材料를郡勸業係에依賴하야共同購入을申込하얏섯는데今껏其藥品이到着치아니하야서消毒時機를빗어果樹에莫大한被害가잇다고當業者側에서는郡勸業의無誠意無責任함을非難한다더라(順天)

湖南少年蹴球
優勝은不湖團

全北井邑新泰仁甲子團主催로湖南蹴球大會를十七日에新泰仁普通學校코트에서開催하엿는데十二團體가集合하야入場式을行하고審判金舜圭氏開會辭가잇슨後數千의觀衆의拍手聲裡에各히좌敵을爭鬪한結果優勝은不湖團으로歸하엿다더라(新泰仁)

金堤基靑總會

旣報한바와如히金堤基督靑年勉勵會에서는去十七日午後九時三十五分에同會館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고會長郭秉元氏司會下에會員動靜과經過報告가잇슨後左記事項을決議와任員을改選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엿다고(金堤)

一、勉勵會日의決定은當會에交涉할會長과副會長에게一任할것
一、任員 會長崔白鎬 副會長林錫弼 會計趙昌孫(女) 智育部郭秉元 德育部崔白鎬 總務部宋德濟 鄭마리아(女) 社交部趙宗泰 金基信(女) 鄭順信(女) 音樂部崔淳哲等諸氏로選定

湖銀支店竣工

全南光州湖南銀行順天支店은總工費四萬餘圓으로舍宅과並하야近近竣工될터인바今月三十一日以內로入宅할豫定이라더라(順天)

徐廷禧氏向扶

旣報=朝鮮饑饉救濟會委員徐廷禧氏가第二回救濟金을分配키爲하야當地에來到하엿던바本地方에限하야는昨年의旱災가三南中第一尤甚한곳임으로이미決定된金五百圓으로는到底히救濟키不能하다는條件付로다시同會에交涉中이라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其後保留하라는電報가到着되엿슴으로同氏는持來金額은各團體代表에게保管하고去十七日午前七時에金堤發自動車로扶安으로向하엿다고(金堤)

◇李憲氏(在東京朝鮮人勞働總同盟中央執行委員長)는地方農村視察을할用務로去十七日午前九時에順天郡邑內에到着하얏는데여러가지關係上當地에서三四日間逗留하고晉州方面으로向하리라고(順天)

主日學生野遊會

全南順天邑耶蘇敎所屬主日學校에서는同校長吳永楠氏外同敎員數十名은同學生男女三百餘名을引率하고五月十七日午前九時부터正午까지同郡南外永觀寺에서野遊會를開催하엿다더라

南浦水道의 메―돌制實施는
六月下旬부터實施

鎭南浦府에서從來의給水條例를變更하야專用栓과公用栓을不問하고一齊히計量器를敷設하야水道使用料를計量에依하야徵收하기로하엿다함은旣報한바와갓거니와同水道係에서는오래前부터水道計量器敷設工事에着手하야半數以上을竣工하엿다는바아즉도全部가完成하기까지는約一箇月의時日을要하게되리라는데方今鎭南浦府에서는給水條例變更의件을監督官廳에申請하엿슴으로許可指令이되기를기다려느저도來六月下旬頃까지에는一齊히計量制를實施할豫定이라더라(鎭南浦)

養信校大擴張
校舍도新築

平南平原郡肅川私立養信學校는年來로當地耶蘇敎會와有志諸氏의熱誠으로維持하여오든중今年四月에와서는敎會와社會有志의特有한熱誠으로肅川面堂下里에五百餘坪의校舍를萬餘圓의工事로建築에着手하리라더라(平原)

載寧農校開校

黃海道載寧邑公立農業補習學校는오래前부터開校設備에奔走하든바去十五日에開校式을하엿다더라(載寧)

人氣를끈 푸로少年의運動
長連運動盛況

旣報=黃海道殷栗郡長連靑年會主催의市民及學生聯合運動會는長連農民共濟會及長連婦人會와本社長連支局後援으로지난十五日午前九時에同靑年會運動場에서開催하고會長責齊相氏의意味깁흔開會辭로비롯하야六十餘種의競技를施行하엿는데三千餘에達한觀衆에게가장큰김과興味를준것은農民共濟會의經營인文藝學院「푸로」少年의活氣잇는競技라하며同七時에優勝旗授與式으로閉會하엿는데當日優勝團體及學校는如左하다더라

長連公普校二三 文藝學院一二 光進學校九 敬成學校入賞校四 以下略(長連)

任實女子蠶業傳習

任實郡蠶業組合에서經營하는任實女子蠶業傳習所에서는去十二日午後一時에第三回入所式을擧行하엿는데生徒는十名인바各面에서一名式募集하엿고그生徒는住宿에하야每月八圓式의學費를支出하며講師는蠶業技手金泰榮氏오修業期限은三個月이라고(任實)

◇取消申請 本年五月十二日에發行한貴紙第八一面에「殘忍無道한茂長金融組合」이라는題目下의記事는事實이全然相違이기로에取消하심을申請함

大正十四年五月十五日 茂長金融組合
朝鮮日報社貴中

敬義塾發展
四氏의特志로

黃海道信川郡加蓮面芝峰里敬義塾은距今四年前에柳東乾、方景淳、閔允植三氏의周旋으로設立하엿스나財政上困難으로因하야마츰내廢塾의逆境에陷한것을前記三氏의不避風雨하는功勞로維持하야오든바今春總會時에現任塾長李淳珪氏와協議한後에會員의義捐六百餘圓을四氏가各擔하엿스며現在學生數는七十餘名에達한바第一回卒業生十七名까지내엿다하며現任敎員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

塾長李淳珪 敎員金基會 李周楧(信川)

東明劇團來萬
本報讀者優待

本月十六日에東明劇團金道善一行은安州郡萬城市에서二日間을興行하엿는데十七日은本報萬城分局에서讀者優待券을發行하엿는데滿場의盛況을일우엇다더라(萬城)

殷栗에中等夜學
十五日에開學

殷栗俱樂部에서經營하는中等夜學은豫定과如히去十五日午後八時殷栗俱樂部會館內에서開學式을擧行하엿는데金相弼氏의簡單한式辭와來賓朴在彬、金潤淳氏의意味깁흔祝辭로一般學徒에게만흔늣김을주엇스며講師李倫求氏는一般生徒에게學則에對한注意가잇슨後式을閉하고有志諸氏의義捐金이잇섯는데氏名은如左하다더라

洪淳翰、李元榮、洪桂秀、李謙永各十圓 洪性淳二十圓 李基善十五圓 鄭基南、鄭昇官、洪敦善各五圓 洪光淳五圓 洪性欽五圓(殷栗)

兩校軍庭球試合
優勝은白馬軍에

平北義州郡威遠面白馬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十五日에同郡批峴面私立信成學校生徒一同이該校職員引率下에當地白馬山城名勝地에遠足을하고자白馬에來到하엿슴을機會로하야同日午後四時부터同校코―트에서兩軍의庭球試合이開催되엿는데選手의妙技를따라觀衆의拍手소리는和暢한봄날의天地를震動하든中最後兩軍의決勝戰에入하야莫上莫下의勢로싸호다가結局優勝의月桂冠은白馬公普軍이獲得하고洪裕桓組에게歸하엿다더라(白馬)

五山醫院設置

定州五山學校에서는今般義州郡邑內芝廳의醫師金敎鏡氏를校醫로招聘하야附屬五山醫院을設置하고一般患者까지도診療한다더라(古邑)

◇平高校生來安 平壤公立高等普通學校第四學年生徒約九十名은去十六日修學旅行次로來安하야安州公立農業學校生徒와庭球試合까지잇섯다고(安州)

郡當局을彈劾하자
官有地不正貸付와 求禮面面民의蹶起

全南求禮郡求禮面에서는近日에面民大會를開催하기爲하야去十二日、準備會를組織하얏다는데그理由를듯건대求禮邑內市場은아즉까지改革이되지못하야基地가九百坪에不過함으로一般은市場의狹隘로만흔困難을感하든中木面鳳東里官有地畓地面積一千七十八坪中二百三十五坪을從來에日本人中西興市에게貸付하엿다가三年前에貸付期限이滿了되엿는데그地形이市場과接續되엿슴으로市場地로使用하기爲하야大正十二年十月三十日에求禮面長高在溪氏가貸付願을郡當局에提出하엿는바十三年二月二十五日에返戾되고同年六月七日에中西興市에게繼續貸付되엿는데中西의貸付願提出은十二年八月十日이엇스나其時郡守金東坤氏는그土地를個人에게貸付하는이보다公益에使用하는것이조타하야終始決裁를不許함으로그貸付願을道當局에提出치못하엿다가十三年五月에金郡守가康津으로轉勤이되는데其時에金郡守에게對하야몃가지不美之說이잇게되자其後에郡廳의庶務課長으로金郡守의處地가困難한地境에잇게되자其機會에郡庶務課長三浦龜右衛門은郡守를私宅으로訪問하고貸付願을決裁하여주기를要求함으로郡守는할수업시決裁해준것이라 그럼으로그후六月에貸付許可가되얏는데中西는그基地에다建築物을着手하려함으로去三月에道知事巡廻時에市民은右官有地個人貸付를取消하고市場에編入해주기를陳情하고그후三月二十三日에市民七十餘人의連名으로鄭海重氏를代表로하야道當局에陳情하얏든바道當局으로부터말하기를勿論個人에게貸付하는것보다市場으로使用하는것이조흐니本郡으로調査하야郡守와意見만相合하면곳取消하겟다함으로代表는그대로도라왓는데그後에道當局으로부터本郡에調查해보내라는通知가왓스나本郡守朴埔燮氏는猶豫未決하야尙今까지何等의處置가無할뿐아니라中西는市場이絕對로狹隘치안으며前番陳情한것도不良한面民幾個人이한것이지面民一般의意見이아니라는意로道當局에陳情書를提出하고一向請負業者를식혀建築에着手함으로去八日에面民代表가郡當局에그處置如何를물은즉郡守는亦是何等의快諾이無함으로一般人民은우리가絕對로官廳에만밋을것이아니라반드시面民大會를開催하야大衆의意見에判決하지아니하면아니되겟다하야即時面民大會準備會를組織하고大會日字는本月十六日로定하얏는데委…[illegible]

注文津의 築港問題
地元有志의活動 完成期를促進해

江原道唯一의港口인注文津(江陵으로부터五里)은現狀으로는到底히港口의使命을發揮키不可能한狀態임으로이미三十萬圓을投하야右岸을修築하고更히左岸으로부터突堤를築造할必要가急迫하엿스나經費의問題로實現치못하엿는데該工事를完成하라면三百萬圓을要하는바行政整理財界不況의今日에잇서서當局으로서는이를促成하기에넘우나可望이업슴으로地元民은不遠한將來에目的을達하겟다는希望으로當地有志들은種種協議한結果寄附金을募集하야完成期를促進하겟다는생각으로關係有志는道當局의諒解를엇는同時에入京하야關係方面에交涉하는中인데十八日朝鮮郵船을訪問하고寄附金의件을交涉하야朝鮮郵船에서도이에好意를가지고應分의寄附를하기로決議한模樣이라더라

◎遮湖公普校生遠足 咸南利原郡遮湖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十六日에五六學年生徒百二十餘名이韓在健、朱炳熙兩先生引率下에東面新興寺學士峯等地를見學하고十八日에歸校하엿다고(利原)

◎利原遮修學校生遠足 咸南利原遮修學校生徒七十餘名은襄實默先生引率下에去十六日西面定光寺에遠足을하엿다고(利原)

開城에少年男女雄辯
來卅日에

開城中央會館少年部에서는本社開城支局後援으로來三十日同會館樓上에서一般少年男女의知識을向上키爲하야少年男女懸賞雄辯大會를開催하리라는데參加資格은開城市內에居住하는十二歲以上十八歲以下의男女로各團體代表又는個人으로申込金三十錢을添付하야市內中央會館이나實信會로申請하기를바란다더라(開城)

自轉車運動會
開城에서開催

開城市內에서自轉車營業者로組織된開城輪業會에서는來二十九日三十日兩日間市內滿月臺公園에서自轉車運動會를開催한다는데場所의混雜을避하기爲하야入場券을發行한다더라(開城)

松高校修學旅行

開城松都高等普通學校五六學年生約五十名은去十九日午前零時發列車로敎員趙益成、金東禧兩先生의引率下에安東縣、奉天等地로修學旅行을하엿는데來校期는二十三日이라더라(開城)

◇寸鐵◇

【咸平】咸平公立普通學校先生님들은學校移轉費를衆術祭落成式을하라고學務委員을식혀돈求乞을한다 五十圓式어벌떡벌떡밧어준다 落成式을잘하는것이 敎育을잘한다는것은아닐러인데 무엇하는氣心인지 배곱흔놈은더욱배가알흘다고한다

◇

【江景】公立普通學校生徒中相福이란八歲小兒가 밥을먹지못하고도 工夫를할생각으로學校에갓다가 授業中에昏倒하얏다한다 아―이것이조고마한小兒의일이아니라 全社會問題를說明하는일이다 그大飢饉에어린이가 울엇다 울사안는者도잇느냐

◇

【洪原】景浦面東村里金某珍은七代先祖의墳墓를全部發掘火葬하얏다 火葬하고남은뼈다귀는 려기白骨을못고墳墓를마드는사람도잇는이써에 한조흔對照이다

金浦個人庭球
豫想以上의成功

金浦金陵庭球俱樂部主催와每日申報金浦分局과本報金浦支局後援으로開催된第一回金浦個人庭球大會는豫定과가티去十七日午前十時부터邑內庭球俱樂部코트에서擧行하엿는데參加選手는十八組로受賞選手는如左하며有志諸氏의義捐도잇섯는데觀衆이數百名에達하야盛況을呈하엿더라

一等朴一陽、車泰淳(金陵里)
二等李爾鎬、文斗鉉(金陵里)
三等崔毅淳、渡邊梅三郎(金陵里)
三等田鎰山、金允貫(通津軍)

◇義捐人士氏名
文達澤商店다오루三十六枚、金浦自動車部金二圓、孔仁鎬金二圓、渡邊商店사이다一打、杉澤商店사이다半打、煙草營業所朝日一箱、蝴蝶聚散商店朝日一箱、每日申報金浦分局金五圓、金陵俱樂部金五圓、朝鮮日報金浦支局金十圓(金浦)

大興靑年主催의 懸賞雄辯盛況

咸南利原郡東面大興靑年會主催의懸賞雄辯大會는旣報한바와가티去十七日午前十二時에當地會館에서會長金丙鎬氏司會로開會되엿는데모여드는聽衆은立錐의餘地가업시四百餘名에達하엿스며十三人辯士의熱烈한雄辯은聽衆에게만흔늣김과感動을주고盛況裡에同午後四時에無事閉會하엿는데當日受賞者의氏名은아래와갓다더라

一等姜秀模 二等黃鍾厚 三等辛宗散 四等鄭永昌(利原)

元山港 貨物依然閑散
六月까지持續?

元山港의倉庫貨物은目下出庫入庫가半半으로依然無活氣인狀態로元山倉庫에도單히北滿粟과氣濟黍가幾分出入庫한바從하야融通資金도出金의材料는無하고入金만多少가잇는模樣이며例의在庫大豆도至今何等의異動이無한데六月까지는荷動이無할듯하다더라(元山)

元山貿穀狀況

本月上旬中元山港輸出入米의數量은玄米輸出高二千六百八十六石精米輸出高七百餘石合計三千三百八十六石이요輸入外國米는合計一萬七千斤이라더라(元山)

南部敎育研究會

咸南南部各公立普校訓導로組織된敎育研究會는去十六日午前十時부터永興公立普校內에서開催하엿는데會場에는永興、高原、文川三郡의敎員百餘名으로諸員의盛況을일우엇스며永興校長三島君의司會로式이열리자當日에實地로模範敎授한日語唱歌의批評이잇슨後庶務會計의報告와本道視學官佐村君의講話가잇고午後六時에無事閉會하엿다더라(永興)

◇姜仁澤氏(朝鮮饑饉救濟會北鮮特派員)는任務及救濟金을押帶하고本月十八日下午一時半列車로來洪(洪原)

期米
仁川期米 第二報 五月十九日
後場亂波

前場은東京八節四十一圓十三錢의報와共히三十六圓九十三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後場에入하야東京初付四十一圓十一錢의情報를接하고三十六圓九十六錢에場을始한바場面은稍漸硬化하야東京十一錢의四番同事임도不拘하고三節三十七圓으로四節○四錢까지跌返할際에東京五節十二錢을報하며硬地로서는正米의實行良好함과相俟하야四十圓三十五錢見當인昨止四十圓○七錢에比하면實로二十八丁의止氣配를報함으로買氣突然旺盛하야五節十五錢으로六節十八錢까지奔騰하니止際에入하야東京六節十一錢으로結局○一錢에軟弱히止場을當하고形勢反히惡化하야⑦及數節의買物이突現하야一落十八丁인三十七圓에場을高하니後場高低의差는二十二丁이더라

◇各地止價◇
十九日後止 昨止比較

大阪	休會	
東京	四一、〇一	一六低
兵庫	三九、五二	一三低
下關	四〇、一四	一六低
桑名	四〇、二九	一一低
名古屋	三九、九六	四七低
金澤	三九、八九	二一低
熊本	四〇、〇五	二〇低
仁川	三七、〇〇	八低

◇阪仁氣配◇
大阪 三十七圓〇四、五錢
仁川 [illegible]

◇各限俵合◇
當限(計[illegible]) 先限(計[illegible]) 賣方 買方 [illegible]

年年增加되는 南浦滿洲粟輸入

작년에는사십여만원어치 재작년보다사십여만원증

白米가輸出되는反影

조선안에서 미곡무역항(米穀貿易港)으로굴지하는 진남포(鎭南浦)항에서 작년중에현미(玄米)와정미(精米) 분미(粉米)등 여러종류의 쌀을합하야 사십삼만팔천사백오십석 일원 오백오십팔만 오천오백륙십사원 어치를일본과 기타외국에수출하엿는데 그대신에 중국남북만주(南北滿洲)로부터 수입하야 온소미(小米)는 칠천일백 구십륙만근(斤)사십팔만팔천륙백오십오원어치인데원래조선사람의살림살이가해마다 쇠패하여저서 대디주(大地主)는 소디주(小地主)로변하고소디주(小地主)는 비령뱅이로변하야날이갈사록살림에 큰타격과압박을 바더오든데다가 작년도에는 뜻밧게홍수(洪水)로인하야진남포를중심으로한 서관일대의기름진 옥야(沃野)가만히황폐되고그와동시에수다한

류리남녀 가옥은집을일허버리고혹은질병(疾病)에걸려 온갓 농산물(農産物)이 말할나위업시 감소되엇는데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남도(平南道)에서 나든 좁쌀(小米)만이 례년보다 십이만삼백팔십구석이감소된관계상 그로인하야 만주(滿洲)로부터드려온 좁쌀도재작년에 비하면 륙천륙십오만칠천근 사십이만칠천구백구십팔원어치가늘엇다더라(진남포)

三斗落小作權에

삼림벌채위반이 묵살되고말엇다

전남광양군 옥곡면장동리(全南光陽郡玉谷面獐洞里)유명한 부호류채규(柳采珪)는자긔의소유림야를 벌채하기로 벌채신청을 산감(山監)에게데출하고그동안에허가업시 벌채하다가 산감문성룡(文成龍)에게발견되야 죄상이탄로됨으로 문산감은 용서할수업다고 강경히주장한바 류디주는 무과실한 소작권삼두락을 박탈하야 문산감에게주고 그뒤에는 문데가업서졋다는 말이잇는바 이말을들은면민은 류디주의벌채 위반사건과 문산감의직권람용의 행위를 그대로둘수업다고비난이 만타더라(광양)

塾畓을放賣한者

유지의분긔로고소데긔

전남완도군청산면(全南莞島郡青山面)모도리에 조고마한모도(茅島)란섬이잇는바호수가약일백삼십여호가량이나되는데생은좋고 물산도러으나 삼년전에서사빈(徐士彬)천병섭(千炳燮)량씨의열성으로던진란만한소년소녀들에게 현재교육을 보급식키기위하야 개량의숙(改良義塾)을설립하고 신문화를 교육하야오든바 소위유지자김달영(金達榮)외네사람이반대하며

현재문화 는얼마를교육하든지아이들만건방지게될따름이요 아무대도 쓰지못하게되다고하면서 여러방면으로 개량의숙발전을저해하든중김규화(金圭化)란자가 숙사(塾舍)를 파괴코저하야 김홍방중에 돌을던저 유리창을 깨트리다가동리사람에게 발각되야 자긔의목뎍을 이루지못하고 다만일반에게 책망까지 바든일이잇스며또그전에 자녀질를 교육함에편리를도모하기위하야김달영(金達榮)외

륙십일인 은도서조직한계(契)가잇는바 그계 소유토디여덟말락을 전긔 개량의숙설립 당초에 그소유답을 동의숙에편입하기로 계원(契員) 반수이상의 승낙이잇섯스나 일백삼십호에 륙십이인의계답(契畓)을 편입식키기는 너무 억울하다고전긔김달영이란자가 이런핑계 저런핑계를하야 반대함으로 결국은 계원이되지못한 사람들은매호당오원식을 부담하기로하고

김달영도 역시쾌히승낙하엿든것인데 그뒤에 김달영은 엇더한 야심인지 자긔명의로잇는숙답(塾畓)사두락을완도읍내 일본인덕영직도(德永直道)에게 저당권을설뎡하고 돈을차용하얏슴으로 이에대한일반의 비난이놉흠을불구하고또다시자긔명의로잇는 의숙긔본답 팔십두락중 사두락을김봉숙(金奉淑)등 네사람과공모하고 청산면 국산리(國山里)위명숙(魏明淑)에게매도하고 김봉숙의명의로잇는숙답은 완도면망석리(網石里)에잇는민두옥(閔斗玉)에게매도하엿슴으로도민(島民)들은이에대하야

분개함을 이기지못하고 숙장서사빈외일반유지가회집하야 그네들을불려다가 질문한즉 모도로말하면 조고마한 섬임으로 배(船)가아니면다든곳을왕래키도불능하며 따라서 고기잡이를하여야 생활을하야갈터 이기에 배다키조케하기위하야 부두(埠頭)를매축할예뎡으로숙답을매도하얏다고하나일반은그대로두지못하겟다하야 김달영외사인을상[illegible]하야완도경찰서에고소하얏다더라(완도)

平壤市民運動大會에 變裝記者찻기

本社平壤支局主催

오는이십사일 평양시민운동회(平壤市民運動會)를 경상리(慶上里)운동장에서 성대히거행되는데 본사평양지국에서는 일반시민의흥미를 도읍기위하야변장긔자(變裝記者)찻기를 할터인바현재본사평양지국에 근무하는긔자김영화(金永驊)군이 변장하고당일운동장부근에서 오후두시부터 왕래할터인바 본지에긔재한김군의 사진을 자세히보앗다가발견하는대로『그대가조선일보긔자김영화가아니냐』고 부르면전긔김군이마첫다는표를 출러인쇄한그표를가지고보사평양지국으로오면 본보오개월치를 무료로데공할터인바당일은 일반의만흔취미를더하리라며 그긔자는과연엇더한변장을하고나설는지?(평양)(사진은변장긔자김영화군)

橫徵한地稅公課

二百餘圓을返還케되얏다

횡포무리한사음의흉책으로 디주회의결의까지무시한자

경남하동군(河東郡)에는로농운동이 일어난후에도 횡포한디주들은 의연히무리한도조와 그밧게 디세와공과금을 횡징(橫徵)함으로 디주소작간에 분쟁이날로험악하여오든중 동 군령에서도 그대로방임할수업다하야 그것을다소간됴뎡키위하야작년구월경에 하동전군디주회를 소집한결과 그디주회에서 소작권은삼년이상보장할것과디세및공과금은디주가

부담할것 을결의하야각면각촌에결의문까지배부하얏든 터인데 본적을구례(求禮)에두고 현금경성에거주하는 김승현(金鍾鉉)이란사람은원래악디주로 일음이놉흔터인데 역시전긔디주회의결의를무시하고자긔의 사음인 동군화개면탑리 김긔선(花開面塔里金鎭善)으로하야곰 화개면에잇는토디 사백여두락에대한디세와

공과금을 소작인에게직접간접으로위협하야밧게됨에그 외디주의결의를 관망하든 당디디주들도 김승현을빙자하고 공연히 흥은남모르게 디세와공과금을바듬으로 화개로농회에서는 전긔김승현의사음 김긔선에게여러번충고를하얏스나디주의명령이라고듯지아니함으로따라서 쟁의가다시일어나게 되얏는데

이현상을 본당디경찰관주재소장곡천부장(長谷川部長)은김긔선을불러서한사람의리해관계로 수백명소작인의 거대한손해를씨치게하는것은아무리디주의 명령이라도 그대로용인할수업슬뿐아니라 이미하동군디주회의결의가잇서 각디주가실행하는터에 하필김디주만 그런무리한 일을할리유가 만무하고 이런것은 중간에잇는 사음의흉책인줄로

인뎡한다 고단단한설유가잇섯스며 이사건으로 출장한하동로농련합회 간부조동혁(趙東赫)와 화개로농회간부김대규오상수(金大圭吳相洙)량씨가 지난십이일에 전긔 김긔선을청하야디세 횡징을 책망한후횡징한디세공과금 륙백여원을 요구하엿든바 김씨도자긔의 잘못을 자각하고전긔 금액을 오는음력사월십오일이내로 각소작인에게 낫낫치반환하야주기로반환증서까지데출하고 원만히 해결되얏다더라(하동)

全收穫을빼앗고 小作權까지剝奪한地主

소작인이고소를데긔하얏다

전남장성군황룡면아곡리김동석(長城郡黃龍面阿谷里金東錫)은 지난이월중에동리고제현(高濟現)을걸어당디주재소에 고소를데긔하엿는데 이날까지 아모말이업슴으로 고소인은 의심이업지안타는데 고소의 내용을들으면작년에김동석은고제현에게논(畓)일곱마지기를 어더 소작하든바 가을에디주와 소작인이립회하고 추수를하야본결과 전수확이열엿짐(一負에十束式)뿐이라 이를전긔

디주박씨 의집에싸허노코분속(分束)하야달라한즉전긔 열여짐가운데 서권은뭇(小束)다섯짐한것을제하고 남어지를 타작하야 벼석섬아홉말을 전부차지하고 나락뭇을독가티 묵지안흔것이 무슨야심이 잇지안흐냐는 무리한말을 함으로 김동석은 자긔당석에서 해결을짓지못하고 자긔집으로몰아와서생각한즉일년동안피땀을흘리고

추수한날 커녁무렵일 마음이라도 어이가업서다시고 것이업슴은아모리순직한사람의 마음이라도 어이가업서다시 디주를향하야소위권은뭇(小束)다섯짐한뭇이라도 난호어 달라고간청한즉 도리여무리라는 한위협을하며 맹을방에 안커잇승을를구하고 여하한말이 업시 하로동안을두다가도망하지말라는말을하는등면권에고용(雇傭)으로

잇슬때에 선하도준 쌀(米)한말을변리를친측벼가한섬 여덟말다섯홉이니더내라는등크소리를쳐러 위협만 할뿐임으로그낫삽시를금고돌아왓섯는데 그나마금년에는소작권까지주지 아니함으로 전수확을 전몰당한 것이분하야고소를데긔한것이라더라(장성)

長淵邑에短刀强盜

현금천여원을강탈도주

황해도장연읍내(黃海道長淵邑內) 박윤보(朴允甫)의집에 지난 십삼일하오 십일시경에 단도가진강도삽사명이 주인박씨는어대가고 업는데 사랑뒤ㅅ문으로들어와서이불로그집사람들을씨워노코 반항하면 칼로죽인다고위협하면서일변돈궤의잠을쇠를비틀고현금일천여원을강탈도주하엿다는대당디경찰서에서는방금범인수색에로력중이라더라(장연)

人山人海

데이일도실패

大邱의變裝記者

어제커녁에는 너무도 일속이또는승겁게 잡히엿슴으로 오늘은좀단단히 할작뎡이엿다 그러나 뎡각인 여덜시전부터남성뎡(南山町)방면은 사람의성흠을이루엇다고하는 탐보가드러왓다 그럼으로 흥미는 더욱진진하얏다 ◇오날커녁에는 특별히 로동복에 다가 상투를틀고지게를 지고 이불한채와 가방한개를 진후에 수염을부티고 나가는데역시남문 파출소에서 일뎡가량을지낫슬때에는 벌서 학생과 청년으로인산인해를 이루엇다

그래서 지나는사람마다 일본인중국인로인할것업시 함부로붓들고뭇는 판이엇슴으로 도더히 그틈을버서 나가기는 어려울줄알면서도 아니나갈수업는 일임으로빨리나가려한즉 눈치 빠른청년네사람이 달려들면서당신이조선일보 긔자최국현이오?함으로연구에 연구를 다한변장은 또실패를 당하고말엇다 ◇발견된후에 다시그길을 통하매어든어린이 부인까지 나와서길가에는 사람으로 의외의대혼잡을 이루게 되얏다 그러나이틀를련하야 실패를 당하고난즉분하기도 한이업지마는 여하간여러분에게 만흔수고와 만흔사랑을밧게된것이 감사함을 부긔하야둔다(대구에서최국현긔)

西署에서울려나오는 老幼兩人의悲哀

두아들과손자가법망에걸려 두사람이할수업시죽게다고

八十老婆와六歲兒의哭訴

음울한 구름이나려누르고 데디는컴컴한 긔운에에워싸여 뭇사람의 심사가자못 산란케된십구일아츰열시경이다 한편에서「이놈네가 도적질을 하지안엇느냐?」고하면서두눈을 부릅뜨고목소리를 돕혀살긔가 등등한서대문경찰서 사법계실(司法係室)한편에서는 팔십가량이나 되여보이는

백발로파 와겨우오륙세가량된 철모르는 어린아이의우름소리와 로파의우름소리가 한테엉키어울려나오기시작되엿다

인정이업고눈물이마른경찰서안에는이로써한참동안눈물의세계를이루엇섯다각계(各係)에서자긔의 직무를다하노라고 붓대를잡고잇든경관 범인을 잡아노코「이놈아,기사마」하면서 신문을하든형사 누구누구할것업시 서내각처에 허터저잇는 사람들은모다웬일인가 하는호긔심에 붓바처 우름소리를 차저모히게되여한동안 서내는무슨 소동이나 일어난것처럼 되엿섯다 그러나 규률에 생명이달린그들은 하나식둘식다각각

제자리로 도라가고말엇다 이에 대호(大戶)사법주임으로부터 장시간간곡한 설유가잇자 그로파는 비로소벅처오르는 설움을 억제하면서 한편으로는 넘어지려는 쇠약한몸을 집행이에의지하고 어린아이의 손목을 쥐고 경찰서문밧그로 발자최를 옴겨한거름두거름 노코말엇다 이제 그두로유(老幼)의설은사정을듯건대 그로파는 서대문밧 화천뎡(和泉町)사는 리성녀(李姓女)(八二)라는 자긔의일홈조차모르는 문혼한부인이오 그어린아이는 그의손자로서 방금여섯살된 아이인대 이와가티경찰서에 차저와서

애호하기 는다름아니라 그로파는 오직슬하에 두아들과 두손자가 다섯식구가 생활난에 몰려 실로참담한 생활을계속하여오다가 작년일월경에 두아들은 절도죄로 서대문형무소안에 부자유의몸이된후 그의장손 되는 김원남(金元男)이가 이러커러 한푼두푼벌어오던중 설상가상으로 그마저도 또절도범에걸려 어리일망정 그들은이라 이제는 식은밥한덩어리를보를 자유로 옴길수업는자 어촌보를 식구라고는 오즉해모르는 여섯살된어린아이와 나이 팔순이넘은 늙은이뿐이라

불상타고 갓다줄사람도 업게되며 벌서몃셰의밥을 궁게되엿다 그러나 먹고야사는사람이라주린배를 채우려고 눈을드러 맘잇는곳을 차즈려 하엿스나 자긔몸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몸이누구를차자가리오 생각다 못하야어린손자의 손목을 잇끌고 마즈막하소연 검억지검 경찰서로 차자와서 감옥에잇는자식 류치장에잇는 손자를 내여보내달라고 호소를 하엿스나 그대로돌려보낸것이라더라

八萬坪의驛屯土

사십명소작인의사활문데

장차엇지해결이될지의문

황해도(黃海道)봉산군(鳳山郡)구연면(龜淵面)구룡(九龍)송뎡(松亭)량리소작인 사십여명은 동면사무소에서『통지서(通知書)』를 바다가지고 십팔일오전열시경에 본군에출두하엿다는데 그출두한 뎐말을들은건대 초와면(楚臥面)안태수(安泰洙)라는이가봉산 역둔토(驛屯土)를년부로 대정십일년에 사서일년간소작인들로 하야금평작케하다가십이년에 계약해제가 되엿다는데아즉까지

소작권을 보창하야소작료를밧는바 작년수해로 소작료를다바치지못한 소작인에게농시가다된 이때에도 독촉이심하야소작인들은 농장이 떠러질가하야 동취서대하야서 바치기도하고 엇던소작인은 이것도못하야 타처로다니며 소작료를구하다가 집에와보니 춘경(春耕)한밧과 밀심은밧을 안씨가팔어먹은일도잇다하야 소작인들은

할수업시 짐을싸가지고 남북만주로 갈가하는차에 군당국에서 긔별하야 드러왓다는데 다는매평에십구전팔리륙등(五等)토디를사라고하며 그가격에는 살수가업다하매 군당국에서는 그러면 소작권

해제계약 서를하고나가라함으로 소작인들은 소작권이 떠러지면 살수가업슬터인즉 라인에게라도 사도록하겟다고 한즉그러면 긔한을 이삼일내로하되 토디갑을 바드려보렴이니 그럿케하겟느냐 함으로 그것도 어려운것이 남에게토디를소개한다하야도 말을듯다가 한다더니그말은업고토디를사라하며 퇴장하얏다는데이문데가장차엇지해결될는지소작인들의압길이 망연하다더라(사리원)

饑饉이나흔慘狀

愛子를托人逃走

긔진맥진하야길에누엇다가 텬행으로구조하는이를맛나

호남선(湖南線)리리역(裡里驛) 일출뎡(日出町)오백오십일번디에사는 송귀현(宋貴賢)씨는 지난십륙일오후한시경에리리에서약일리가량 되는 목천포(木川浦)부근을지내다가 크나큰길거리에 어떤녀자가 어린아이를세시나좌우에뉘여두고죽은사람과가티 누어잇는것을보고 무른즉 자긔는어린자식들과 여러날을먹지못하고 긔진맥진하야 오도가도못하고 이디경이 되얏노라 한즉 주소는가르치지아니하고 다만 반분의힘도 업시 고성은리(李)요 나히는 삼십사세라한다 이것을본송씨(宋氏)는참아그대로도라올수가업서 그로히밥을사서먹인즉 리성녀(李姓女)는당신의 덕분에 살엇다는 감사한뜻을표한후나흔자로는이 어린자식을 셋이나데리고살수가업스니당신이 이세살먹은 어린것을다려다가 기르라하며 송씨는우리집에도아이들이만히잇다한즉 나는몰나요당신이 죽이든지살리든지맘대로하라하며방향업시다려남으로송씨는할일업시 다려다가 기르는중 이라더라(리리)

小作人에게同情

옥곡쟁의때에 여러유지의발긔로

전남광양군옥곡(光陽郡玉谷)소작쟁의로 동면소작인단 이십여명과 광양로농연합회간부와순뎡과 광양로농연합회간부후원단일행이 업시다려날로 디주김학모의 집에쇄도 하엿슴에 김학모가 회피하고나오지아니함으로 소작단과 유원단일행은 최후담판을 단행코자이삼일을숨머가며서주린배를움켜쥐고 면회하기를 기다리고잇셧다함은 당시에이미보도한바 어니와이금보를드른옥곡면유지리봉춘(李泰春)리승의(李承儀)박임홍(朴王洪)삼씨의발긔로동정금을 모집하야주리고 잇든소작단에게로긔보냇섯는데그 때동정한인사와금액은아래와갓다더라(광양)

徐漢忠李起善各二圓李泰春鄭連琛、朴準圭、鄭運萬、辛守顯、鄭武極、徐桂浩、李起洪、安炯義、李陽梅、徐漢厚、鄭京和、李起亮、鄭琮和、安炯燦、李鳳儀、金鍾相根、張經鎬、徐漢武、金鍾瀾、張淳鎬、徐學洙、許貞奎、李洪儀、張丁俱、文永基、鄭運吉、朴玟洪、鄭永和、朴鍾洪、徐東夢、張璨鉀、徐在夢、孫榮祚、千鳳岳、李榮徵、徐潤楨各一圓

(圓以下略)

務安教育界

민중긔관은성황

반동파의경영은대실패

전남무안군 암태(全南務安郡岩泰)소작쟁의대상물인 목포부호 문재철(文在喆)은암태청년회에 대하야그 반항의수단으로 자긔친족과 자긔의수족커럼 미드는친한 사람들로 하야금 디주소작상조회(地主小作相助會)와교육협회(教育協會)를조직하고그곳교육계를 분렬시켯다함은 그전부터 본보에 두차보도한바어니와 이제당디 교육계의상황을 듯건대 암태청년회와 암태소작인 회에서협력하야 긔본금을 모집하고 금년 사월일일부터 남녀학교를 경영하는 일반학생들이 열광뎍으로 입학함으로 남녀학교가립추(立錐)의여디가업슬만큼확장이되엿다하며소위교육협회측에는 적지안흔금액을 소비하야교실까지 건축하야노코 학생모집에 로력을하얏스나 학생이업서 개교(開校)를못하엿다는데그주모자문응창(文應昌)과 박화오(朴化五)외몃사람들은할수업시 휴학한다더라(목포)

面書記兼舍音이

小作爭議를맨들고서

신작인을시켜서소송까지

권유한다고일반면민분개

전남광양군 옥곡면(全南光陽郡玉谷面)면서긔 리강준(李康俊)은면서긔 재직중순텬군 월등면 대평리(順天郡月燈面大坪里)한 디주김학모(金學模)의사음을도하야 아모과실업시 소작권을 박탈함으로소작인의불비평이등등하든바금번옥곡소작단이 디주의 집에쇄도하엿슬때에작년도에이작되얏든김또은(金又銀)의소작답

륙두락도 소작인회의주결으로 삼두락식 분작하얏는데 그두락을 김디주에게질문한 즉이것은 리강준의소위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하며 문서에도 김또은에게 륙두락의 소작권이 잇슨즉 전부를금년부터 김또은이가소작하라고 하얏고 또윤몽수(尹夢守)소작밧삼두락을면산감문성룡(面山監文成龍)에게장중호(張重鎬)밧

오두락을 김임바우(金任岩)에게이작시키엿슴으로 김디주는 허물업는 소작권을일일히반환시킨다고 단언함으로 이말을듯고 도라온소작인은 사음과신소작인에게 전과 디주의말을전하고 경작케되엿는데 리사음면서긔는 소작인을시켜 디주의환표가 업스니 출수업슨즉네가소작하라고 말하면서 만일에 소송이되면 비용外지 자당하겟다고함으로 시비가 날로심하고 그말을들은소작인과일반면민은 면서긔로서 불량한 행동을함을 분개히녀기는 동시에 대책을강구중이라더라(광양)

손에가진돈을

별악가티빼서가

시내 광희뎡(光熙町)일뎡목 이백삼십사번디 고영명(高永明)의처 김성녀(金姓女)(六)는 십구일밤여덟시 반경에 종로탑골공원압야시(夜市)에서 물건을사랴고현금오원각수가 드러잇는지갑을들고잇는중 엇던십칠팔세된자가 빼아서가지고 질풍가티 우미관뒤골목으로 도주하는 것을본모든사람들이 추격하엿스나마츰내 붓잡지는못하고일대소동 만이르키엇다더라

廣濟社의言渡

주범은징역이년

진남포광제사(廣濟社)사건의판결언도는 지난십팔일 오전구시부터 평양디방법원 데일호법뎡에서재판장이등(伊藤)판사송영(松永)계(桂)량배석판사와률산(栗山)검사의 립회로 개뎡되얏는대 이등재판장으로부터 검사의구형과가티주모자김뎡석(金貞錫)에게는 징역이년을언도하고그외십이명중아부(阿部)외두명은 집행유예를 언도하얏다더라(평양)

猛獸出沒

달성군에출몰

인심사지흉흉

경북달성군공산면(慶北達城郡公山面)방면에는 근일에산도야지(山猪)등속의맹수(猛獸)가출몰하야 밧에는 무엇을심을수가 업시 모다파먹으며 밤이면사람이다닐수가업시되야인심이흉흉하다더라(대구)

交通展覽開催

칠월일일부터

상품진열관에서

조선교통협회(朝鮮交通協會)주최의 조선교통뎐람회(交通展覽會)는칠월일일부터 십일外지열흘동안 영락뎡상품진렬관(商品陳列館)에서 개최한다는데뎐람회의사무소는조선교통협회안에잇다하며 출품은 륙월삼십일外지사무소에 도착하도록 보내기를바란다더라

織工關係六名

공판은이십륙일

평양양말동맹파업사건의희생자로검거되된최윤옥(崔允鈺)최인수(崔仁洙)임관죽(任觀竹)김정홍(金正洪)김영삼(金永三)안룡섭(安龍燮) 등륙명은 평양서의 취됴를마치고 평양디방법원 검사국으로압송되야 결국 그중최윤옥은 맹장염(盲腸炎)으로평양형무소에서신음(呻吟)함으로 그의 친구들이 보석을 교섭하얏스나 효과가업시되고 지금外지 병중에서지리한고초를 바드면서 공판긔일만고대하는데 이제야 그기다리든 긔일이 오는이십륙일로 결뎡되얏고 당일피고측을 위한변호사는김지건(金志健)한근조(韓根祖) 량씨가무보수로변론한다더라(평양)

鑑札盜難

경성부령에서

경성부령(京城府廳)에서는언제인지모르게 자뎐거에 부치는감찰(鑑札)데팔천일백일호로부터구천호外지 구백여개를 도난당하엿슴으로 시내각서에 그호수는무효인것을 통지하는 동시에 범인데포를 의뢰하엿다더라

蠅驅除와下水道

위생과에서협의

경긔도위생과(京畿道衛生課)에서는날이차차더워 감을따러서 『파리』가 만히생길터임으로 금년에는 일층적극뎍으로 파리를 구제코저 멀지아니하야 부내의 위생계 주임회의(衛生係主任會議)를 열고구데뎍으로구제방침을연구하기로 되엿고 또금년에는특히『하수데이』(下水日)를지뎡하야 하수구(下水溝)와 변소의불결물을 철더히 박멸할예뎡으로 조합주임회의(組合主任會議)도 열게되리라더라

男便과다투고 飮毒自殺未遂

쥐잡는약을먹고

경북봉화군 내성면해저리(慶北奉化郡乃城面海底里) 류명(柳珙)의 처홍성녀(洪姓女)(三)는 지난십오일 오후네시경에 쥐잡는약을 먹고생명이 위독중이라는데 그음독한 원인을들은즉 지난십오일아츰에전긔홍성녀는밥을지여가지고 방에 들어갓다가 남편이『반찬』을 잘작만하지 못하엿느니 하는등여러가지로꾸지람을하엿는데 그것이분하야 음독한모양이라더라(봉화)

祝賀紀念식

씰음판이수라장

지난십일 양양군대포리(大浦里)에서는 은혼식긔념축하(銀婚式紀念祝賀)식에 미긔(尾崎)라는 일본인의심판하에 씰음을시작하엿는데지지도아니한 조선아이가 가졋다고밀치고일본아이를상을줌으로대포공립보통학교(大浦公普校)교편을잡고잇는 남필순(南必淳)씨는 거긔에대한리유를 물은즉전긔미긔는『너희가무슨 관계가잇느냐』고하며입에 담지못할욕설을 함으로 남씨도흥분되야 불쾌한 말이오고가고하다가미긔는 발로 모래를차서 남씨에게 씨언짐으로 이것을 본군중은 커놈때려라 웨치며몰려들어전긔미긔를 에워싸고따리다가 화해가되고 다시 소야천(小野川)이란 일본인의 심판하에 씰음을계속하야 리일용(李一用)함명선(咸明先)의 두유사가 자웅을 결할때에 하나,둘,셋하는구령이잇기전에 시작하엿다고 소야천은 심판하는 박죽으로 함군의면상을 때려 박죽은깨여지고 함군은 면상에상처를밧게되엿는바 이광경을본 군중은 극도로 흥분되야 씰음판에욱여들어자못수라장이됨으로 림장하엿든 경관의 제지로겨우 진정되엇다더라(양양)

賭博의首領

三千圓을橫領

서대문서에서 엄중히취됴중

주소미상(住所未詳)인 장경삼(張慶三)은 시내 각처로 도라단이며 노름을잘한다고 속이고서 노름하는단데십여곳의 수령이되여가지고그십여단데의돈삼천여원을 횡령한사실이 발각되야 목하서대문서 사법계주임에게 엄중한취됴를 밧는중인데이자는 그외에도 시내각처로단이며 여러가지수단으로 사긔와횡령을 한사실이 만타더라

放火盜賊逮捕

포천에출몰한자

포천군군내면 구읍리(抱川郡郡內面舊邑里)오백삼십삼번디 리귀산(李貴山)(三)은지나간십륙일 오전한시경에 구읍리본사지국(本社支局)사무실문유리창을 깨트리고 드러가 벽장문을열려고 애를쓰다가열리지아니함에『람프』에든석유를 장판에붓고 불을노앗스나 석유가 커어목뎍을 달하지못하고 그저테잇는 가족『츄렁크』한개를 훔쳐가지고 종적을감추엇는데 포천경찰서에서 로력한결과 십칠일오전 한시경에 전긔귀산이 다시 남의집에 드러가물건을 훔치고잇는것을 발견하고 데포취됴중이라더라

載寧에竊盜頻頻

피해가매일잇다

황해도(黃海道)재령읍(載寧邑)에는 요즈음절도가 횡행하야일반에게 피해가만타는데 지금그자세한말을 듯건대 본읍류화리(柳花里)김도현(金道鉉)의집에서식긔를비롯하야 이웃집의 곡식과 이곳저곳에서 해를 입은사람이 다수하며 류화리구십일번디 리병모의집에는 침구를 전부가져갓다는데 재령은수년간 흉년으로인하야그가티 절도가 만타하며일반은크게 주의함이 조켓다더라(재령)

無罪한學生을 함부로따리어

강화공보훈도폭행

강화공립보통학교훈도 (江華公普訓導)강모(姜某)는 지난십오일에 동교 륙학년생도 정평심(鄭平心)(六)은아모잘못한도업시 함부로 구타하야왼편 뺨이몹시 붓고또불두덩을 발길로차서 일시는 거름을마음대로 것지못할만치 따리엿다는데 이제그원인을들은즉 전긔정평심이가하학을하고

운동장에 가서「테니스」를하려고 하얏는데 무릇이 편을짜가지고 시작하얏슴으로 정평심은 할수업시「그외진 공을아니치겟다」고한것을 엇던생도가 전긔 강훈도를보고 정평심이가 학교에대하야 욕을 하얏다는 거짓말을 하얏슴으로 그와가티 [illegible]한것이라는데 이말을들은 정평심의 부친정지민(鄭志敏)씨는 매우 분개하야 학교로 강훈도를 차저가서무슨 리유로 학생을 그와가티따리엇느냐한즉 그리유는 말하지안코 그저잘못되엿스니 이번만용서하야 달라고 애걸을함으로다시

그교장을 보고말한즉그 대답이 미안하다는 말한마대업고 그저어름어름하며 아조성의업는대답을 함으로 그러면일반학생에게 대하야 정평심은잘못한것이 업는것을그려케 따리어서 잘못하얏다고 사과를하야달라한즉 그것은 직원회에서결의를하지안코는 할수업다고 함으로 정지민씨는 그대로도라왓다는데 이말을들은 일반학부형은 매우분개하며 여기커기서 의론이분분하다더라(강화)

女子誘引者

조치원서에데포

론산군강경면중뎡(論山郡江景面中町) 김인선(金仁善)(三)은 방금 충남연기군조치원(燕岐郡鳥致院) 경찰서에 인치되야 그내취됴를 밧는중이라는데 그자는 강경중뎡에서음식뎜영업하는 박성재(朴成在)가영업할녀자를 구하는것을보고 녀자를 다려다주마하고돈 오원을 려비로 어더가지고군산(群山)으로가서일본사람의집에서 고용하는강봉녀(姜鳳女)(二)를다려다가 박재성에게소개하엿다가 얼마뒤에 다시 강봉녀를 대하야 그대의빗은 다부갑헛스니 공주(公州)방면으로가서 가티자미잇게살자고 꾀이여가지고 공주로다리고와서 다른곳에 팔고자하다가 사실이발각된것이라더라(조치원)

强盜가튼竊盜

명주에서취하다가 발각되매위협도주

청주군 문의면상장리(淸州郡文義面上長里)에는 요사이 『별신』이 잇서낫선사람의출입이빈번하야매우혼잡한터인데지난십삼일오후 두시경에 그곳서로뎜(酒店)을버리고잇는김모(金某)의가가에서엇던자두명이주인의눈을피하야집신(草鞋)세죽과기타물건이삼건을절취하는것을마츰주인이 발견하고 쫏차가 빼아스라하매 그자들은 더닥하게도 『이놈쫏차오든지소리를지르면 죽인다』고위협함으로할일업시 빼앗겨바렷는데 그자들은 현도면신탄리(賢都面新灘里)방면으로 간모양이며 경찰서에서는범인을수색중이라더라(청주)

江上의料理店

여름준비의한강

금년에더욱번창할듯

벌서날이 더워짐을따라한강인도교(漢江人道橋)를중심으로하고 그부근 일대에는 『배노리』『낙시노리』를하는사람의수효가늘어매일수천명이오고가게됨으로 금년에는 종래에업던료리뎜(料理店)을한강배우에두게되고또 큰배에고기를만히잡어다너코근방에 둘러안저낙시노름을 하게되여 례년보다일층 번창하게되리라는데 이에대하야그 지원자는 이미료리뎜두엇던바 십팔일에 그원서를데출하엿는데 개와낙시노리배몃척의허가가나게되야 불원간에한강 푸른물결우에찬란한뎐등불빗헤서펄펄뛰는생선회를 버려노코 돈만흔사람들의 흥청거리면서 노는막이 열리리라더라

强盜칼마진 卞興順은死亡

대현리강도는 아즉도잡지못해

지난구월밤 열두시 사십분경에 고양군 연희면 대현리(高陽郡延禧面大峴里)미곡상변흥순(卞興順)의집에 침입하엿던강도두명에대하야 소관서대문서에서는이래 십여일동안을 데포에로력하엿스나 범인은 아즉오리무중에잇는중이며 당시범인으로부터칼을마진 변흥순은 즉시세부란스병원에 입원하야 그동안 치료를밧든중 십팔일오전 구시경에마츰내 절명되엿는데 등(背)으로찔른 칼날이 폐(肺)를 커지상한外닭이라더라

不義子를暗葬

사실발각되야인처취됴

라주군문평면송산리장말순(羅州郡文平面松山里張末順)(二九)은 팔년전에남편이 죽은뒤에홀로세월을 지내오던바 작년사월에 자긔시가외사촌되는 박성천(朴成千)과 추한관계가 잇든결과 잉태外지 되얏는데백방으로 락태를시키라고하다가 목뎍을 이루지못하고 필경아이를 낫섯는데 나흔지 몃한시간뒤에 죽은것을 전긔박성천이가 암장한사실이발각되야지금취됴를밧는중이라더라(라주)

日人母女自殺

원인은정신병

경남진영역전(慶南進永驛前)이백오십오번디 송본력미(松本力彌)의안해 송본나쓰(松本ナツ)(三)는지난십륙일오후여섯시경에장녀창자(昌子)(三)를업고 자긔집후면에잇는여섯길되는우물(井)에몸을던저 자살하엿는데 원인은정신병이라더라(진영)

公醫家에竊盜

칼들고주인을찔러 부상케하고도망

함남단천읍(咸南端川邑)에잇는공의풍주(豐住)의집에지난십삼일밤에 도적이들어왓는데 도적이 들어온 그미를안풍주는 곳쫏츠려고 소리를치매 도적은칼을가지고대항하다가 주인을 함부로찔러목과팔에상처를내고곳도망하엿다는데 그자는 중국사람인듯하다더라(단천)

日本에天然痘

일본고긔시(高崎市)의 뎐연두(天然痘)를진찰한 이목박사(二木博士)는십팔일내무성(內務省)에출두하야 상황보고를 하얏는데 현금뎐연두환자는칠십삼명가량인바 시긔가조치못한外닭으로 더욱만연할념려가잇다더라

◇集會◇

◇安息日教會聖書研究會。부외회긔리(回基里)안식일교회에서는 조선내각디사역자가 집회하야십칠일부터이십구일外지성서를연구하는동시에야간(夜間)에는 매일전도강연(傳道講演)을 한다고

◇取消申請 貴報五月五日付第一千六百九十九號朝刊二面『密偵이恐喝取財』란題下의記事는 事實無根이옵기玆에至急取消하심을望함 大正十四年五月六日 新義州府初音町九番地鄭用斌印 朝鮮日報社編輯局 貴中

휘파람

▲삼랑진(三浪津)청년회원신차만(申且萬)은밤중에신문긔자를 유인하야가지고폭행을하랴다가목뎍을이루지못하고말엇다 그런데그 원인은 그청년회일을신문에 긔재하얏다는 것이라고 한다 ▲자긔네들의 하는대로 신문에 게재한것을 무슨外닭으로 폭행을하랴고 하는지? 로골뎍으로 『일선융화』를목뎍한다고떠들어 대는것을 그대로 게재하얏는데 무슨 감정이잇슬가? ▲그따위 폭행을 할생각을하지말고 자비들의하는행동을 사진을박고 하는말을 축음긔에너허 천추만대에 선뎐을하여도 조금도북그러운일이업슬만치만하게달빗을실혀하는놈이누군지를아느냐모르느냐